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류태환

6156/taehwan.ryu@eugenefn.com

강한 반등, 다시 건설을 봐야할 때

“ 7월 31일을 기점으로 국내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가운데, 건설업종은 IT 하드웨어와 기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8/5 기준). 상반기 건설업종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원전 모멘텀은 수주 성과 지연으로 약화됐지만, 2분기 호실적을 통해 높아진 이익 체력이 확인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데이터센터 모멘텀 강화. 또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계기로 미국 발전 플랜트 시장 진출이 새로운 주가 모멘텀이 될 전망.

“ **[샌프란시스코에서 쏘아올린 공]**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AI 데이터센터 투자 협력 방안이 발표. SKT는 엔비디아·애플·AWS와 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확장을 추진하고,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투자 및 GPU 공급과 브룩필드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각 세종 AI 팩토리를 기존 55MW에서 200MW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GW급 인프라 구축을 추진. 이에 따라 3대 AI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SK와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가시성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

“ **[재차 부각되는 전력 부족]** 텍사스주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신규 전력망 연결 승인을 일시 중단. 현재 검토 중인 전력망 접속 신청 용량은 474GW로 역대 최대 전력 수요의 5배 수준. 다만 자체 발전으로 텍사스 전력망 접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승인 중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계통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On-site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 필요한 공급 시점과 용량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연료전지(SOFC)와 가스발전, 장기적으로는 SMR을 활용한 전력 조달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

“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 임박]**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198억 달러 규모)가 유력하게 검토 중. 미국 내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원의 종류보다 적기 공급에 초점을 맞춘 발전 플랜트 투자가 우선될 전망. 이를 계기로 국내 건설사의 미국 에너지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

“ **[높아진 이익 체력]** 성장동력의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실적 개선도 확인. 현대건설, 삼성E&A, 대우건설, DL이앤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 업체별 일회성 요인은 존재하지만, 수익성 중심의 Mix 개선과 함께 경사 마진도 상승하는 모습. 실적 발표 이후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도 최근 건설업종의 강한 반등을 뒷받침.

“ **[다시 건설을 봐야 할 때]** 데이터센터와 발전 플랜트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각되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종에 다시 주목할 때라고 판단. 발전 플랜트 수행 경험과 안정적인 이익 체력, 금리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을 갖춘 기업에 주목. DL이앤씨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발전 플랜트 EPC 경험을 보유한 가운데, 미국 현지 프로젝트(GTPP)를 수행 중. 미국 발전사업 개발·투자·운영 경험을 보유한 DL에너지와의 시너지 또한 기대. 업종 투자 의견 Overweight, Top-pick DL이앤씨 제시.

업종투자 의견

OVERWEIGHT

코스피 건설 증가지수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7/31 이후 업종별 증가지수 상승률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